

### 월드컵 열리는 독일 불교는?

월드컵 열리고 온 세계가 달아오르고 있는 6월, 세계적인 시선은 지금 그 축제가 열리고 있는 독일로 모아지고 있다. 철학의 나라로 알려져 있는 독일, 하지만 독일이 종교교육에 얼마나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독일은 초등학교에서 종교교육을 할 정도로 종교가 독일 문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 않다. 국교는 개신교이지만 개신교 인과 가톨릭 신도가 각각 40% 정도씩 차지하고 있는 독일, 그 속에서 불교는 과연 어떤 위치에 있으며, 독일 사람들은 불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 명상·수행 인구 급증 불교단체만 600여개

독일의 불교 신도수는 점점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70년대 초 15개에 불과하던 불교단체 수가 현재는 600개 이상이나 된다. 스리랑카, 태국 그리고 미얀마의 '테라바다(Theravada-남방불교)'는 물론이고, 한국 중국 일본의 '선', 또한 몽골과 부탄의 '티베트불교'를 통해 불교의 가르침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인들은 이제 이들 가운데에서 자신이 원하는 나라의 불교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데미 센터'가 건립되었다. 독일 불교도들은 뇌 연구자와 핵 물리학자들과 그들의 경험에 관하여 토론을 하기도 하고, 베트남 승려인 틱낫한과 함께 세계적인 평화운동에 참여하기도 하고, 심리학자와 의사들은 린포체의 지혜로움에서 도움을 받기도 한다. 삶과 죽음에 관한 티베트의 책 <티베트 사자의 서>는 54개국어로 출판될 정도로 관심을 끌기도 했다. 독일에서는 업무상 파티나 접대를 위한

### 뇌 연구자·핵물리학자와 경험 교류 가수·배우 등 유명스타 불교에 흠뻑 일부 학교 불교 교과목 채택해 가르쳐

'독일불교연합회'는 독일인 불교신자가 20만 명 이상이고, 이들과 같은 공감대를 이루는 사람들까지 합한다면 100만 명은 훨씬 넘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함부르크 시내의 상 파울리에는 젊은 친구들이 모여 예전의 조상소를 정신센터로 개조하였으며, 그 곳에서 40여명이 명상 등의 수행을 하고 있다. 또 시내에 자리잡고 있는 불교센터에서는 매일 저녁 100여명의 독일인들이 명상을 한다. 이들 가운데에는 의사와 회사 중역 등 유력인사들도 적지 않다. 또한 함부르크의 티베트 사원에서는 7년 과정의 불교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베를린의 학교에서는 불교를 교과목으로 채택해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뮌스터에서는 유럽적인 '선-아카

대화의 소재로 순수한 가르침이 종종 거론된다. 이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들은 불교를 믿는 유명인들에게서 불교의 존재를 느끼게 된다고 말한다. 예를 들면 가수 니나 하겐, 안나 크루제 등의 경우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배우 랍프 바우어, 호워드 카렌달 그리고 우줄라 카르벤 등은 새로 입문한 사람들이다. FC 바이에른 뮌헨의 축구선수 메메트 솔은 그의 팔 위쪽에 부처의 문신을 새겨두고 있으며, 희극배우 하페 케르케링은 선-수도원에서 힘을 얻는다. 이들은 한결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늘을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세계를 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여러 모순들이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고 있다"고 말한다.



한마을선원 독일지원은 현지의 포교를 활발히 펼치고 있는 사찰 중 하나로 꼽힌다. 독일지원 어린이부 2명이 '독일월드컵 환영사절단'에서 활동하고 있고(사진위) 지난해 10월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세계출판박람회에서도 적극적인 포교활동을 벌여 주목을 받았다(사진아래).

불교가 독일에 첫발을 디딘 지는 겨우 100년 남짓하다. 1903년 라이프치히 출신의 칼 자이렌슈튀커가 '불교도 포교연합'을 세우면서 시작했으며, 곧 이어 안톤 귀터가 독일 최초의 승려가 되었다. 그 당시 독일의 불교도들은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사상에 감명을 받고 있었다. 1854년에 쓴 <기독교의 몰락>에서 그는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 "장차 인도의 지혜가 전 유럽으로 퍼져 나갈 것이다."

"불교는 물질만능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독일인들은 많은 종교가 삶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 만능열쇠와 같은 해답을 지니고 있을 것이라는 몰라도 내적인 평정을 이룰 수 있는 답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독일인들의 불교에 대한 관심은 점차 커지고 있으며, 불교를 찾는 사람들은 부처의 가르침을 자기 자신의 삶으로 귀결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 인도 불교성지 대대적 개발 관광객 유치위해 인프라 구축

인도가 해외 관광객들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대대적인 불교성지 개발 계획을 추진한다. 인도의 뉴스매체인 'PBI'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인도 관광부는 일본 정부와 협력해 모든 불교 유적을 관광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개발하는 한편, 올해 부처님 탄생 기념행사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기반시설 개발은 도로 및 공항뿐만 아니

라 휴식과 오락시설, 세미나 및 연회장과 같은 시설물 설치에도 초점이 맞춰지며, 명상센터, 박물관, 여행센터 등도 건립된다. 이와 함께 시각적인 홍보효과를 위해 각종 기념비도 세울 계획이다. 또 쾌적한 관광을 위해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국가기간 도로망을 확충해 관광객들이 성지를 찾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접근성을 최대한 높일 계획이다. 관광국은 특히 이번 개발을 통해 가장 중요한 불교성지 22곳을 정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 이병두와 함께 읽는 오늘의 세계불교



## 월드컵 축구와 계율

독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월드컵 축구 대회에 온 세계가 열광하고 있다. 언론에서는 "지진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지역에서도 월드컵 축구를 시청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며 '분위기 띄우기'에 나선다. 4년 전의 열기가 아직까지도 식지 않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월드컵 축구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그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도 높다. 대회 개막 훨씬 전 현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하면서까지 '월드컵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다. 많은 사람들에게 '탈속(脫俗)'의 이미지가 심어져 있는 스님들도 이런 세속의 열기를 어찌지 못했다. 최대 종단인 조계종의 총무원장스님이 빨간 응원복을 입고 북한산을 오르며 '대-한

는 짓이다. 사찰 안에서 크게 웃거나 소리를 질러대는 일은 부처님께서 정해주시는 계율 규정을 어기는 것이다. 혹시 경기 결과를 놓고 내기를 하는 스님이 있으면 절에서 쫓아낼 것이다." 우리에게는 '보수적'이라고 느껴지는 농 응에 스님의 이런 조치가 캄보디아의 일부 스님들에게는 오히려 '세속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 같다. 몇몇 주지스님들은 "농 응에 스님의 제안을 따르지 않겠다"고 하면서 경기 시청을 불허하였다. 이 스님들은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는 스님들이 감정을 억제하기 힘들다"며, 스님들에게 월드컵 경기 시청을 허용하는 일은 "계율 규정에 대한 도전"이라고까지 한다. '보수적'인 노스님들뿐만이 아니다. "TV는 오직 뉴스를 보거나 교육용으

### 캄보디아 일부 스님들 경기시청 거부 "계율이 아직 살아있구나! 신선하다"

민국'을 외치는 장면이 공영 방송의 중요 시간대 뉴스에 나오고, 도심의 주요 사찰들에서도 '응원 법회'를 연다. "성인도 시대의 흐름에 따른다(聖人從時俗)"는 옛말이 틀리지 않음이 확인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차별함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곳이 있다. 까다롭다고 여겨질 정도로 '철저한 계율 준수'를 요구하는 남방 상좌부 승단에서는 이번 월드컵 축구대회를 맞이해서 '규율'을 정해 시행하면서 '차별함'을 강조하고 있다. 6월 7일 중국의 신화(新華)통신이 인용한 <캄보디아 데일리(The Cambodia Daily)> 기사에 따르면, 캄보디아 승단에서 '감정의 자제'를 전체 조건으로 스님들에게 월드컵 경기 중계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허락하였다. 수도 프놈펜의 교구장 소임을 맡고 있는 농 응에(Non Nge) 스님은 "중계방송 시청 허용"의 조건을 분명하게 강조하였다. "스님들이 중계방송을 시청할 수 있지만, 조용하게 보아야 한다. 화난 얼굴로 소리를 질러대거나 환호하는 것은 걸러져 아이들이나 하

로만 활용해야지 오락용 도구가 될 수 없다"며 '허용 여부'와 상관없이 세속의 열광적인 분위기를 거부하는 젊은 스님들도 많이 있다는 보도로 보아 세속 사람들이 모두 '평정심'을 잃지는 않은 모양이다. '승가법(僧伽法)'에 따라 스님들의 일상을 정부에서 철저히 통제하는 태국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캄보디아에 서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전체 조건을 내걸지 않으면 캄보디아나 태국 승단에서도 스님들이 요란스럽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규제 조치가 나왔을 수도 있다. 스님들이 빨간 응원복을 입고 '대-한민국!'을 외쳐대고 심지어 목탁 반주(伴奏)까지 하는 우리나라와 '묵언'을 조건으로 시청을 허용한 태국과 캄보디아를 단순 비교하여,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 단정할 수 없다. 하지만 온 세상을 휩쓸고 있는 '열기'를 식혀주는 곳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계율이 아직 살아있구나! 신선하다'는 느낌을 갖게 되니 나로서는 캄보디아와 태국 스님들에게 기대를 갖게 된다. ■자유기고가

# 달마의 氣

외출과 여행이 잦아지는 노출의 계절 여름! 그만큼 갖가지 나쁜 기운과 마주칠 기회가 많아집니다. 이제 달마의 기로 자칫 닥쳐올지 모를 나쁜 기운을 미리 예방하세요!

[www.shmall.net](http://www.shmall.net)  
2006 베스트브랜드 인기상품!

名家인터내셔널

고객상담전화 1588-3278

호국불교효예종 법진스님 외 여러종단 스님들께서 추천한 인기 상품!!

고객여러분의 성원에 감사하는 뜻으로 달마의 氣 14K를 구입하시는 모든분들께 백팔달마그림 1점을 드립니다.

수험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선물!

## 행운충전

대리점 및 총판모집 1588-3278

무점포, 소자본으로 고소득 사업하실 분을 모읍니다.

예부터 병귀(病鬼)와 사귀(邪鬼)를 물리치는 힘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 달마 수맥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는 달마의 기를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걸이와 귀고리, 핸드폰 고리를 몸에 지니는 순간 행운이 찾아옵니다.

• 제조원 : 名家인터내셔널 • 판매원 : (주)S.H상사 (주)S.H상사 - 서울시 양천구 목5동 907-14 벽산미라지타워 410호

귀고리

핸드폰줄

목걸이 (목걸이줄은 별도)